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부활의 능력·민족의 소망

부활절 헌금,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 아동 지원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참여한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3월 31일 명성교회(김하나 목사)에서 '부활! 생명의 복음,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부활절연합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장섭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정서영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정계, 교계 인사들과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대회장 장종현 목사는 대회사

에서 "한국교회가 대통령님과 위원회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힘써 기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이 시간 부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예배를 통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했다.

오정호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철 목사(기감 감동회장)가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김홍석 목사에장고신 총회장의 집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성찬예식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 뜻을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부 환영과 결단 시간에서는 준비위원장 이강춘 목사(예성 총무)의 인도로 연합기관장들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와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문도 발표했다. 본교단 총회장 조일구 목사는 선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복음으로 민족의 화합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

한편, 2024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 아동 교육비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성, '제117년차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 거행

신임목사 94명 배출하며 거룩한 성결인의 사명 다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임석웅 목사)가 4일 서대문구 아현교회에서 '제117년차 성결인대회 및 목사 안수식'을 열고 신임목사 94명을 배출했다.

성결교회 목사로서 목회의 첫발을 내딛은 신임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성도의 임무를 위해 순교의 각오로 임할 것을 다짐했다.

1부 '예배'에서는 기성 총회장 임석웅 목사가 '거룩' (레위기 19:1)을 주제로 설교했다. 임 총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결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2부 '목사안수식'에서는 94명

의 신임목사들이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고, 순교의 각오로 성직을 받을 것' 등을 서약했다. 이후 안수위원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안수례를 베풀며 성결교회에서 펼쳐질 앞으로의 목회 여정을 격려했다.

94명의 신임목사들은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안수기도하는 것으로 첫 사역을 시작해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3부는 '축하와 인사'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본교단 부총회장 김만수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성결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의 책

인문학을 하나님께 4

평의 삶과 성경 사이에 인문학으로 다리를 놓는 한재욱 목사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시리즈 네 번째인 책은 '디지털 대항해시대'라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인문학의 나침반이다.

1부에서는 새로 등장한 용어들을 이해하면서 이 시대를 살피고, 2부에서는 특히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알아보고 무엇을 준비하고 기도할지 짚어본다. 3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으로 넘어와 우리의 많은 것을 대신한다 해도 결국 대신할 수 없는 고유의 것, 우리가 지키고 끝까지 붙들 가치를 이야기한다.

각 장의 주제를 인문서 또는 인문학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므로 쉽게 읽히며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입문서로 매우 유익하다. 무



관심과 무지의 영역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세를 알아 올바르게 대응하며 복음을 위해 지혜롭게 활용하기 원하는 이들, 기술을 선용하는 가치관 정립에 함께하며 중보할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저자/한재욱 출판사/규정

기윤실, 총선 앞두고 유권자 투표 돕는다

'체크리스트' 배포, 크리스천 유권자 위한 '평가항목' 제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28일 크리스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 '총선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을 담은 이번 체크리스트는 5개 항목 총 16개 질문으로 이뤄졌다.

먼저 '도덕성' 항목에선 후보

자가 정당한 재산 형성 과정을 거쳤는지, 권력형 부패와 연결된 자산 증식이 의심되는지 등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항목에선 후보자의 삶과 발언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정도, 사회적 재난에 대한 발언과 실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공약 및 정책 수행 역량' 항목에선 공약 중 환경을 파괴하

거나 지역 이기주의적 성격은 없는지, 입법 활동을 수행할 전문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치인으로서의 비전' 항목에선 후보자의 정치적 발언이 합리적 비판과 건강한 대안인지 혹은 일관된 비방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대한 평가' 항목에선 정당이 저출생과 기후위기, 양극화, 평화통일 등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구세군, 식목일 맞아 산불 피해지역에 밀원수 지원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장반희)이 산불 피해 지역을 도움 목적으로 지난 1일 강원도 영월군 남면 산야에 밀원수(蜜源樹인 헛개나무) 묘목 500그루를 심었다.

구세군은 '2024년 절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일 강원도

영월에서 '산불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밀원수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구세군은 2022년 동해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영월군에 지난해 밀원수인 풍성 헛개나무 1,000주를 지원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서 풍성 헛개나무 500주를 식재했다.

한편, 구세군은 1921년부터 절제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금주운동으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시대 변화에 따라 최근 환경오염이나 에너지 소비 등으로 확장됐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108개 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 진행

청소년 대상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도 안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가 4월부터 108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을 진행한다.

국내 최초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을 시행하며 장기기증의 정확한 정보와 가치를 알린 본부는 장기기증 인식 확산 및 성숙한 문화 정착을 위해 14년간 교육을 지속해 왔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인 '모든 생명은 소중해'는 올해 65개교 15,698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높이에 맞춘 교재를 제공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장기기증의 가치를 전한다.

지난해 '생명사랑나눔운동'에 참여한 학생 5,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743명(32%)이 교육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의사가 생겼다고 밝혔다.

박진탁 이사장은 "이런 시절부터 생명과 나눔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며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활발히 펼쳐 가겠다"고 했다.

성결상담소 / 성결가정폭력상담소
☎ 02-725-7077

하나님의 성격 수업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너나 할 것 없이 성격테스트에 열광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름의 정체성을 찾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으로 관계를 쌓기 위해, 상대의 성격도 열심히 공부한다.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기질이 있음을 이야기한다. 예서는 외향적인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해서 집 안에만 있었다. 이렇게 기질이 다른 각자에게 주어진 원색과 같아서 그저 발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발견과 분석에 그치지길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다시 태어남으로 성격도 거듭나기를 바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을 통해 내 자신의 성품을 완전히 다시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격 수업'은 MBTI라는 친숙한 분석 도구를 손에 쥐고 우리 삶의 모습과 성경의 사례



들에 적용한다. 크리스천 버전의 'MBTI 테스트'를 수록했고 실제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과 각 장을 정리하는 'One-point lesson'이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원색을 가꾸어 보석으로 거듭날 때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그분께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이 책이 그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서창희 출판사/생명의말씀사

제2회 가정의 달 맞이 백일장대회

(주)성결신문사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아빠, 할아버지」라는 주제로 백일장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성결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본 교단 소속 누구나
- 주제: 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 부문: 수필(생전에 계신 분이나 천국에 가신 분에게 편지 형식도 가능)
- 원고분량: 글씨 10포인트로 A4 1~2장 내외
- 접수방법: 1) 이메일 sknews12@daum.net
2) 우편: 서울 종로구 인왕산로1가길11 <우편번호: 03026>
- 접수기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 입상자 발표 및 신문에 게재: 5월 7일자 성결신문
- 시상: 1) 대상: 상장과 상금 20만원
2) 최우수상: 상장과 상금 10만원
3) 우수상: 상장과 상금 5만원
- 문의처: 성결신문사 편집부 070-7132-0091

성결신문사

구독후원금 납부운동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샬롬!
그동안 예성의 교단지인 성결신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독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금과 광고로 협력해 주신 전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안드립니다.

저희 성결신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국교회 교직자님들의 애정이 담긴 후원을 힘입어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 저희 신문사도 교단 산하의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작은 부분이나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가 교단산하 교회와 장로님들께 발송해 드린 성결신문에 대하여 문서선교적인 차원에서 2023년도 구독후원금 44,000원을 부탁드리오니 발송된 지로용지나 국민은행 533301-01-168714(예금주: (주)성결신문사)로 송금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성성결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알찬 신문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성결신문사